
서당 훈장의 구술사적 연구 *

- 일제 강점기 이후를 중심으로 -

피 정 만 (강원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서당 훈장의 교육활동의 실체를 구술사적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다. 훈장에 관하여 지금까지 기록이 미흡하였던 훈장의 자격, 연령, 임기, 학문적 능력, 품위,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과 향촌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훈장은 향촌의 지식인으로서 유학의 도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향촌의 각종 예식에 관여하고 주관하는 ‘마을의 법’ 과 같은 존재로 활동했다. 훈장은 스스로 서당을 열어 자영서당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향촌의 유지들이 조합으로 설립한 서당에 임용되기도 했다. 훈장의 임기는 연말에 과집 행사 때 유임 여부를 결정하였다. 한국의 향촌사회는 집성촌 지역이 많아서 훈장은 학생과 혈족관계인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훈장에게 내는 학채는 대부분이 연 벼 1가마 정도였는데 학생 수와 훈장의 명망에 의한 가감이 있었다. 훈장의 학채는 풍족한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훈장은 서당을 운영하는 일 외에,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한약방(한의사) 등을 겸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제어】 : 서당 훈장, 훈장의 자격, 훈장의 임용, 훈장의 역할, 훈장의 생활

I. 서론

1. 서당교육의 구술사적 연구의 의의와 목적

서당교육에 관한 구술사적 연구는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한국의 교육사에 중

* 본 연구는 2006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당교육의 구체적 실제, 특히 훈장의 실재를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는 서당교육에 구술사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첫째로, 서당 훈장의 교육 실재를 탐색하는 작업이다. 서당은 전통 교육기관으로 글방, 서방, 책방, 서재 등으로 불리어졌다. 서당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친밀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다. 서당은 전통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의 서민 교육기관으로 오랫동안 걸쳐 많은 국민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쳤다. 서당은 향촌의 서민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사회적, 교육적 변화를 겪었다.

조선시대 말기에 근대교육이 도입되던 때에도 서당에서는 촌락을 근거로 꾸준히 전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해 민족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 교육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향촌의 부족한 초등교육의 수요를 보완하고, 6.25 전쟁 이후에는 빈곤한 가정의 초등교육 이후의 일시적인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당은 한국의 교육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둘째로, 본 연구는 구술사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서당 훈장에 관해 연구했다.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 연구는 대체적으로 문헌과 유물 등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고자 할 때 일정한 경험을 구술로 기록하는 연구방법이다. 구술사 연구방법은 인류학의 한 분야인 민족사(民族史, ethno-history)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민족사 연구는 특정 사회집단의 생활양식을 시간적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문자 기록이 없는 사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한 연구방법이다(이종각, 2004: 548).

서당교육에 관해서는 박래봉의 일제하의 서당교육 연구와 1980년대 정순우의 “18세기 서당연구” 등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 있다. 대부분의 서당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했지만, 박래봉의 일제하의 서당교육 연구는 서당 수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문헌연구나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으로는 서당 훈장의 교육 실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구술사적 연구로 서당 훈장의 교육 실재를 파악하는 데는 중점을 두었다.

서당 훈장의 구술사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동기는 소멸되는 서당 교육의 실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도이다. 과거의 교육에서 교육실체는 기록과 유물을 남기지 않는 경우는 많다. 그리고 남겨진 교육실체에 관한 기록도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있다.

서당은 전국의 향촌의 산재하여 서민의 교육을 담당했으며, 그 수가 20,000여개 이상이 되는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서당의 교육적 영향과 규모에 비하여 연구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그 미흡한 부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당의 교육실체에 관한 부분이다. 서당의 교육실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원인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서당이 초등 수준의 기초교육 기관

으로 사회계층에서 일반 서민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 서당교육에 대한 기록이 적었다. 둘째, 서당교육에 대한 기록은 개인의 문집에 간략하게 서술되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당에서 수학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서당 훈장의 실제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서당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다. 그들의 증언을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채록함으로써 서당 교육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¹⁾

본 연구는 서당의 훈장을 구술사적 연구로 그 대상 지역을 강원지역과 경기지역의 일부에 국한하였으므로, 전국 서당의 교육현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 연구는 서당의 보편적 연구로서는 제한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서당의 선행연구자, 서당의 문헌적 연구는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한하였다. 이는 서당 훈장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구술사적 연구의 의미를 증가시키려는 의도이다. 서당훈장의 구술사적 연구가 더 진척되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서당교육의 확대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서당훈장의 관한 구술사적 연구는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의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면서 각 지역에서 서당교육을 수학한 사람들을 면담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가. 면담자와 연구자의 선정

면담자와 연구자 선정은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적자원을 구축하는 문제로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 면담자는 구술사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 서당교육 면담자 선정의 기준은 서당교육을 수학한 사람으로 ① 연장자, ② 장기수학자, ③ 지역 안배의 순으로 15명~30명을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 참고한 면담자는 모두 265명으로서 그들의 출생년도는 <표 1>과 같다.

1) 서당교육 연구자들에게는 서당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고령으로 사망하여 그 대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도 서당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표 1〉 면담자 출생년도 분포

출생년도	면담자수	출생년도	면담자수	출생년도	면담자수
1901-1905	5	1906-1910	15	1911-1915	24
1916-1920	34	1921-1925	32	1926-1930	29
1931-1935	30	1936-1940	32	1941-1945	29
1946-1950	19	1951-1955	12	1956-1960	4
				계	265

2) 연구자는 면담자로부터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아 의미 있게 조직해야 하므로,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했다. 연구자를 선정할 때 고려한 요건은 ① 해당 시·군 지역에 근무하는 남자 초등학교 교사, ② 연령이 45세 이상인 자, ③ 성격이 활달하고 성실하며 꾸준한 자, ④ 서당교육을 받은 자 등이다. 연구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연구자로 선정한 이유는 면담자와의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소속한 사회에 대한 참여관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주민과의 접촉이 비교적 친밀한 편이다. 연구자의 연령을 40대 중반 이상의 남자로서 한 것은 면담자들 대부분이 남자이며, 50대 이상의 연령으로 인간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의 편의를 감안한 것이다.²⁾ 연구자의 성격을 고려한 이유는 한 면담자와 면담이 통산 3~4회 이상 거듭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면담자가 초점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지하면서도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서당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정한 이유는 그의 서당교육 경험이 연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연구자 중에는 단 1명이 서당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³⁾

나. 면담내용 구성

서당교육에 대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면담에 필요한 내용을 면담표로 만들었다. 면담표는 서당교육의 실제와 문화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2) 연구 초기에 28세의 초등 교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간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3) 정선군 서당교육을 연구한 초등교사 박원의(1946년생)는 서당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연구자 겸 면담자로 서당 수학 당시의 서당교육을 회고하여 서술하였다. 박원의(1996).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는 제보자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면담표의 내용을 채워가도록 했다. 훈장의 구술사적 연구에 사용한 질문의 항은 훈장의 성명, 연령, 출신(고향, 외지), 가족상황, 용모, 언어, 체벌, 지역사회와의 관계, 존경도(학문수준, 인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전태규, 1993: 4). 질문의 내용은 면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도 채록할 수 있다는 생각했다.

면담방법에 대한 기술은 춘천서당에 관한 연구(박영모, 1994: 4)에서부터 구체화했다. 이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춘천유림의 모임이 있는 시간을 확인한다. ② 유도회, 한사회, 정기모임 등에 방문하여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를 구한다. ③ 면담후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면담에 협조를 구한다. ④ 연구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보자와의 면담을 토~일요일로 하여 전화 연락 후에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다. ⑤ 면담 시에는 면담자료, 음료수, 담배, 사진기, 녹음기 등을 활용한다. ⑥ 제보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면담시간은 3~4시간으로 한다. ⑦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면담자 별로 3~4회 면담을 실시한다.

강원도의 서당 교육에 관한 구술사적 연구로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강원도(13편), 경기도(2편) 지역의 총 15편이 교육학석사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2편의 석사학위논문(홍천군과 인제군의 초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1991, 1992)은 초기에 집필된 것으로 연구의도와 적합하지 않았고, 또 1편의 연구인 “춘천시 동면 상걸리의 전통서당과 개량서당연구”는 본 연구의도와 차이가 있어서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고자료로 이용한 서당교육 연구의 현황은 <표 2>과 같다.

<표 2> 서당교육 연구 현황(1991-2003)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주제 및 지역	제보자	특징
전태규	1993. 2	영월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30명	
유태열	1993. 2	삼척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30명	
한홍식	1994. 2	원주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30명	
김상준	1994. 2	횡성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30명	
박영모	1995. 2	춘천지역 서당교육에 관한연구	20명	
김광국	1995. 2	가평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20명	경기도
김억렬	1996. 2	양양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20명	
박원의	1997. 2	정선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20명	
김운희	1997. 2	강릉지역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20명	
강치원	1999. 2	양구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20명	
신용훈	2002. 2	철원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15명	
최철규	2003. 2	양평군 지평지역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10명	경기도
계			265명	

연구 범위는 강원도와 인근 경기도(가평군, 양평군)의 12개 시·군 지역의 서당이며, 이 지역의 서당에서 수학한 이들 중 면담자는 총 265명이다.

II. 서당 훈장의 교육실제

서당의 훈장은 한국 전통사회의 교육 담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며 한국인에게 친숙한 전통적 교사상이다. 서당의 훈장은 한국 전 지역의 향촌에 산재된 서당에서 지식인으로서 향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당의 훈장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서당 훈장의 자격, 훈장의 임용과 동기, 훈장의 업무와 역할, 훈장의 생활, 훈장의 체벌을 논의한다.

1. 훈장의 자격

훈장의 자격은 일정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훈장의 연령, 학문수준을 논의한다.

훈장의 연령은 <표 3>과 같다.

<표 3> 훈장 연령 분포

연령대	90	80	70	60	50	40	30	20	모름	계
인원	1	3	36	88	67	23	12	9	26	265

면담표에서 훈장의 연령을 면담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훈장의 연령은 40대 이상에서 70대 까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는 20세부터 훈장을 하는 사람도 얼마간 있었다.

훈장의 자격요건으로는 학문적 수준을 가장 중요시 한 것으로 생각된다. 훈장의 학문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크게 3가지 정도이다. 즉 훈장은 지역사회에서 학문적으로 명망이 나 있다, 사서오경을 알고 주역도 알고 계셨다, 꾸준히 학문을 연찬하셨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훈장을 평가했다. 훈장의 학문에 대한 평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마을에서는 최고의 학벌가였다.(한홍식, 1994: 120)
- * (훈장을 하는 나의) 부친은 사서삼경과 서예에 능통하시고, 학식은 양강지방(양양과 강릉 지역)에서 글을 하는 사람이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김억렬, 1996: 50,52).
- * 훈장님은 강원도에서 알아 줄만한 학자였다(김상준, 1994: 20)
- * 양양군 전체에서 가장 학식이 많고 훌륭한 훈장이었다(강치원, 1999: 20).
- * 양양유림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학자였다(김억렬, 1996: 23)
- * 원주지역에서는 제일가는 학자이시며 선비셨다(한홍식, 1994: 95)
- * 훈장은 이교진으로 아호는 김현이었다. 김현 선생은 양양군에서는 이름난 학자였다. 이교진 훈장은 양양군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훈장을 하여 제자가 많았다(김억렬, 1996: 56, 69, 72).⁴⁾
- * 훈장은 학문에 능통하여 영남지방까지 알려진 분이다(유태열 1993: 55)

학생들은 훈장의 학문적 수준을 지역의 학문의 명망으로 전하고 있었다. 훈장의 명망과 그 실재를 훈장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

나의 부친은 건암(建巖) 김윤환(金允煥)이다. 훈장인 부친은 1919년 독립만세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찰을 피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개화도라는 섬으로 피신하여, 3년 동안 호남학자 간제장의 휘하에서 학문을 쌓아서, 그 당시 ‘한수 이북의 제일가는 학문가’ 로 여겨졌다. 그 당

4) 3명의 제보자 모두 이교진 훈장에게 수학하였다.

시 부친은 20대 후반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쓰고 의관정제를 했다(신용훈, 2002: 27).

이를 보면 훈장이 지역사회의 학문적 명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소문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역에 명망이 있다고 소문난 훈장은 상당한 학문을 갖춘 사람인 것으로 생각된다.

훈장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학생들은 “훈장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알고 있었다.”(김억렬, 1996: 72; 한홍식, 1994: 114)고 말하고, 더 학식이 높은 경우에는 “주역을 알고 있었다.”(김상준, 1994: 38)고 말했다. 특히 훈장의 실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역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 * 경서와 춘추를 다 보셨으며 문리가 트인 분이였다. 책을 보지 않고 강을 들으시고 토나 글자가 틀리면 집어내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다(한홍식, 1994: 61).
- * 훈장의 이름은 모르고 그냥 원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70세 정도였으며, 동네에서는 어른격으로 점잖고 성격이 깔깔하셨다. 주역에 능통하셨으며 동네 대소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셨다(한홍식, 1994: 84)

반면에 학생들은 훈장이 주역을 모르는 것을 보고 실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서당에 영남의 선비 총각들이 와서 주역을 논의하는데 훈장이 떠듬거리면서 응대하고 총각들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한홍식, 1994: 112)고 하면서, 자신의 훈장이 실력이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훈장의 학문의 연찬과정을 보면서 훈장의 학문 수준을 평가하기도 했다.

- * 훈장의 학문 정도에 대하여 학생시절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훈장의 학문이 높다고 모두들 말하던 기억이 있다. 한시를 지어 책을 매 두었던 기억이 있고 새벽이면 훈장님의 글 암송하는 소리를 들었다(김윤희, 1997: 27).
- * 학문 외에는 다른 것은 몰랐다. 훈장은 새벽에 일어나서 정좌를 하고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경서를 암송했다(김윤희, 1997: 23).

학생들은 훈장이 새벽에 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을 보고 있었으면 또한 그러한 학문을 연찬하는 훈장을 학문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훈장의 학문에 대한 학생들이 평가는 대체적으로 자신들을 가르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당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10대-20대의 학생들로, 한문의

초보적 지식수준인 천자문, 명심보감, 계몽편 등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훈장의 학문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훈장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지역에서 최고의 학자, 사서삼경과 주역을 알고 있으며, 꾸준히 학문을 연마하는 모습 등을 들었다.

훈장은 자신의 학문적 실력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일이 있었다. 훈장은 서당 행사 때에 학생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서 초청한 훈장과 심사과정이나 격식 등의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지역의 인근의 훈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춘광길인가’ 라 하여 4월에 좋은 날을 잡아서 주역을 토론하기도 하였다(김상준, 1994: 43).

훈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학문적 연찬에 노력했다. 최현규는 16세에 훈장이 되어 당시에 “훈장이 되어 어려웠던 것은 학생이 배우는 책의 내용을 본인이 모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힘들었다.” (박원의, 1997: 34)고 하면서 학문 연찬을 위해 노력한 것을 말하였다. 훈장생활을 경험한 다른 제보자들도 훈장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했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훈장생활에서 책을 많이 읽고, 글자는 옥편을 찾아서 독학으로 공부하여 가르쳤다(박원의 1997: 28).

* 훈장을 시작하고 5년 동안은 제술(製述)이 부족하여 시 짓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접과 파접 시에 시작대회를 못하고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며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들만 교환하다가 헤어졌다. 훈장생활 6년째부터는 제술을 가르치며 시를 지어 개접, 파접 때는 백일장을 하였다(박원의 1997: 42).

이것으로 훈장은 자신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2. 훈장의 품위

훈장은 학생을 교육하는 스승이자 지역사회의 선비로서 매우 엄격한 품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훈장은 의관 정제, 엄격한 언어, 엄격한 성격, 불의에 대한 저항 등으로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

가. 의관 정제

훈장은 대체적으로 의관에 정결하게 하였다. 훈장은 학동을 가르치는 때에는 상투에 망건을 쓰고, 외출 시에는 두루마기와 관을 쓰고 백고무신을 신었다. “훈장이 의관을 정제하지 않고 있으면 의관을 정제할 때까지 자습을 하였다. 특히 훈장이 상투를 틀 때는 앞에다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손거울을 놓고 열레빗으로 위쪽으로 빚은 다음, 동곳으로 상투를 꼈었다.” (김억렬, 1996: 61쪽)훈장은 의관을 정제한 후에 학생의 교육에 임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훈장은 외출 때에도 의관을 정제했다. “그 당시에 귀한 별표 고무신을 신었다.” (김억렬, 1996: 61, 64) 이처럼 훈장의 의관은 훈장의 품모에서 가장 중요한 격식으로 보여진다.

나. 엄격한 언어와 성품

훈장은 언어에서 “덕담을 하는 일이 많고 웃기는 소리를 하는 일이 적었다. 인품은 점잖고 엄하였으며 언행이 정확하고 깔끔하였다. 훈장은 좌담 때 성현의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훈장의 학력은 사서삼경을 능통하시고 시예에 뛰어났다.” (김억렬, 1996: 18)

훈장의 성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온화한 성품을 갖추었다고도 했다. “훈장의 성미는 날카롭고 지조가 높았다. 훈장의 별명은 매사에 오르내림 없이 엄했기 때문에 ‘짜지기’ 라 했다.” (한홍식, 1994: 77) “훈장님은 매우 엄하셨습니다. 학식도 높았다.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한홍식, 1994: 93)

서당의 학생들은 훈장이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훈장의 인품은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세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다.” (김억렬, 1996: 56). “머리는 삭발하였고 용모가 단정하였다. 성격은 명랑 쾌활하였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다.” (박원의, 1997: 14). 이를 보면 훈장은 향촌의 모범적 인간상을 유지하는데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항일 교육

훈장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리더로서 유학의 인륜적 덕목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항일교육을 했다. 훈장은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경찰의 체포령을 피해서 방동지역에 숨어 지낸 경력이 있는데, 태극기를 그려 놓고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김억렬, 1996: 48). 배일정신을 가진 훈장들은 “일본 놈들한테 당하지 말라.”, “일본 놈들에게 언젠가는 꼭 원수를 갚아야 한다.” 는 말을 늘 했으며, 우리 민족이 일본 압제에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억렬, 1996: 48). 훈장이 마을의 대표가 되어서 일본인이 설악산에서 벌목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전개하다가 서당이 폐쇄되었다(김억렬, 1996: 61). 훈장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가며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혈서로 작성한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極’ 을 일러주고, 자신이 젊었을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야기를 비롯해 틈틈이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었다(김억렬, 1996: 84). 춘천의 김종환 훈장은 한문을 파자(破字)하여 글을 짓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⁵⁾ 이처럼 많은 훈장들이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항하여 항일교육을 실시하였다.

3. 훈장의 임용

훈장의 임용 방식은 서당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향촌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서당은 대부분 자영서당이거나 동리유지조합서당이였다.⁶⁾ 자영서당은 좌훈서당이라고도 하는데, 훈장이 자신의 집에 서당을 개설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서당이다. 자영서당은 훈장이 스스로 개설하여 가르치고 운영하였다. 선대에서부터 서당을 설립하여 자신이 대를 이어 훈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증조부 대에서, 혹은 조부 대에서 서당을 개설하여 대대로 서당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집을 마을에서는 ‘서당집’ 이라고 불렀다(유태열, 1993: 23).

동리유지조합서당은 향촌의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설립한 서당으로서, 학생의 학부형이 15일, 한 달 등의 간격으로 훈장을 모신다고 해서 번차서당(番次書堂)이라고도 했다. 동리유지조합서당의 훈장은 향촌의 학부형들에 의하여 임용되었다. 학부형들은 파접 시에 회의를 통해 훈장의 유임을 결정했는데,⁷⁾ 훈장을 보내게 되면 새 훈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김억렬, 1996: 31, 45, 50, 73). 훈장이 임용된 방식은 다양했다.

- * 훈장은 김형묵으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삼척 북평 사람으로 이곳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그가 만주로 망명한다는 소식을 부친이 듣고 양양 철도역에 나가 김형묵 훈장을 수배하여 집에서 기거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다. 김형묵 훈장의 명성을 듣고 잘 사는 집 부모들이 하나둘 자식들을 맡기기 시작하여 서당을 개설하게 되었다(김억렬, 1996: 61,64).
- * 훈장 이상영은 당시 60세 정도였다. 경기도 포천에서 훈장을 모셔왔는데 한쪽 다리가 불구였고 통감까지 통달하셨다(신용훈, 2002: 61).
- * 구은 송종은 선생은 당시 65세 정도이신데 향시에 시관 일을 보신 분으로, 시 부 표 풍에 능통하셨다. 구은 선생을 모시는 데 집을 새로 짓고 선생과 가족을 이주시켰다. 구은 선생은 인품과 학식이 훌륭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박영모, 1995: 19).
- * 한학을 하는 노인의 향교의 일로 왔다가 숙식이 불편하므로 동리의 유지가 사랑채에 서당을 열어 동네의 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게 하였다(신용훈, 2002: 49).
- * 훈장은 화천댐 공사의 노동자로 와서 아버지와 친구가 되어 독선생으로 가르쳤다. 교수방법이 탁월하고 열성을 가지고 가르쳤다(박영모, 1995: 72).
- * 동네 어른들이 수소문하여 잘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삼척까지 가서 김원정 훈장을 모셔왔다(전태규, 1993: 84).
- * 마을에 훈장이 안 계셔서 원주군 신림면 송피리에서 나의 외삼촌이 소개하여 모시고 왔다(전태규, 1993: 86).

5) 五口或口石皮亡(吾國破亡, 우리나라가 망하니), 人禾女禾重橫行(倭種橫行, 왜놈이 제멋대로 날뛰는 구나) (박영모, 1995: 75).

6) 이 연구에 조사된 서당의 설립 형태는 유지조합 서당 150개, 훈장자영서당 103개, 독서당 4개, 미상 8개, 총 265개의 서당이다.

7) 파접 때에는 훈장에게 휴가를 주는 문제도 결정했다.

* 부친 최돈우는 아호가 죽재(竹齋)로서 영동지방에서 유명한 한학자였으며 훈장이었다. 매년 각 고을에서는 부친을 훈장으로 모셔 갈려고 동네 유지들이 며칠씩 집에 와서 지내기도 하였다(김억렬, 1996: 50).

마을 사람들은 명망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훈장으로 모셨으며, 훈장에게 집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빙된 훈장이 학생을 잘 가르치거나 실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 서당은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 처음에는 조그만 사랑방에서 (서당을) 했다. 차차 유명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학생이 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5명 정도가 공부했다. 나중에는 30여 명으로 학생이 늘어났다.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 왔다. 황영정은 당시 30세로 장가를 들어 딸을 낳았는데 혼자서 방을 얻어 밥을 끓여 먹으면서 공부했다. … (중략) … 윤길중은 당시 20세로 이곳에 와서 다녔다. (후에)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지금은 서울서 생활하고 있다(한홍식, 1994: 101).

훈장이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이 기피하여 멀더라도 다른 서당으로 옮겨갔다(한홍식, 1994: 101,69). 그리고 무능한 훈장은 학부모들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신용훈, 2002: 40). 대체로 훈장이 학생을 잘 가르치면 계속 가르치게 했고, 못 가르쳐도 1년 계약 동안에는 바꾸지 않았다(김억렬, 1996: 18). 반면, 훈장에 대한 대우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훈장이 대우가 좋은 서당으로 옮겨가기도 했다(박원의, 1997: 34).

한편, 훈장이 훈장 생활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식들을 다 키운 뒤 노년의 여가를 활용하여 훈장이 되거나(한홍식, 1994: 101), 종중(宗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종중에서 훈장으로 적합한 이를 추천하여 훈장을 맡기거나(신용훈, 2002: 12), 기존 훈장이 떠난 뒤 마을 주민들이 동민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훈장이 된 경우 등이었다(박원의, 1997: 42).

4. 훈장의 역할

서당의 훈장은 향촌의 지식인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향촌의 각종 예식을 주관하고, 일에 관여하였다.

가. 향촌의 각종 예식의 주관과 관여

훈장은 향촌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고 그의 언행은 영향력이 있어서 ‘마을의 법’ 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한홍식, 1994: 61,71). 훈장은 마을의 행사나 학생의 가정에 초대를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상좌에 앉았다(김억렬, 1996: 64).

훈장은 향촌사회에 각종 일에 관여하였다. 훈장은 가뭄에 물 제사의 축문을 지어 읽고(한홍식, 1994: 112), 동네에 시제, 제례 등에 관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관혼상제 시에는 가례와 예식을 알려주었다(김억렬, 1996: 41). 동네에 상을 당하면 만사, 축문을 써주었고(김억렬, 1996: 76, 강치원, 1999: 55,59), 결혼 시에는 택일을 해 주었고, 아이가 출생하면 작명도 해 주었다(김억렬, 1996: 79), 신축한 집의 대들보에 상량문을 써주었다(신용훈, 2002: 61). 그리고 집안내력을 모르는 사람에게 족보도 만들어 주었다(강치원, 1999: 28). 이처럼 훈장이 지역사회의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지역민과의 유대관계가 깊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훈장은 몸이 쇠약하여 마을 사람과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음 사람들이 찾아오면 축문 등을 써주었다.”, “지역사회를 위해 축문, 작명, 택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유대가 좋았다.” (강치원, 1999: 55, 59)고 했다.

나. 지관

훈장은 동네 사람이 죽으면 묘자리를 보아주는 지관의 일을 하였다(한홍식, 1994: 77). 훈장의 대부분은 지관의 일을 하였으며, 지관 일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 훈장도 있었다. 그런 훈장은 학생에게 풍수학의 고전인 설심부(雪心賦)를 가르쳤다. 설심은 남의 묘자리를 잡아줄 때에 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박영모, 1995: 33). 훈장은 학생들에게 풍수학을 가르치기도 했다(박영모, 1995: 107). 그러나 훈장 중에서는 지관의 일을 유학자로서 할 수 없는 잡일로 보고 무시하는 훈장도 있었다(김억렬, 1996: 79, 김상준, 1994: 65).

다. 기타

훈장은 학생들에게 책 매는 방법은 물론 붓을 비롯한 각종 학습용구를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서당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같은 책을 필사하고 제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김억렬, 1996: 61). 훈장은 때로 주민들의 점(육호점)을 보아주었다(김상준, 1994: 57). 나이 많은 학생이 화투를 치는 것을 보고 금지시키기도 했다(김억렬, 1996: 44). 한가할 때는 왕골자리를 짜는 일도 했다(김억렬, 1996: 79; 김광국 1995: 35). 훈장은 학부형의 회갑에 수연시를 써주기도 했다.⁸⁾

5. 훈장의 생활

가. 학생과의 관계

향촌사회는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집성촌락이 많아서 훈장과 학생의 혈족관계가 많았다. 그

8) 壽宴詩 ‘六十光陰加一春 閱來苦樂到念新 獻壽子孫喜懼曰 接賓家族歡忙辰’ (김상준, 1994: 61).

혈족관계는 부자지간, 조손지간, 숙질지간 등이 있었다. 특히 종중(宗中)에서 설립한 서당에서는 종중의 인물을 훈장으로 임용하므로 훈장과 학생의 관계는 대부분이 친척지간이었다.

아버지가 좌훈서당을 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서당에 다니기도 했다. 훈장과 학생이 부자지간인 경우에, 학생들은 대체로 훈장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그에 비해 자신은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 * (훈장인) 부친 건암 김윤환은 1919년 독립만세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경찰을 피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개화도라는 섬으로 피신하여 3년 동안 호남학자 강제장의 휘하에서 학문을 쌓아서 그 당시 한수 이북의 제일가는 학문가로 여겨졌다(신용훈, 2002: 50,52)
- * 부친은 훈장인데 나는 공부를 게을리 하였다. 부친이 운영하는 골말서당에 입학하여 5년 동안 배웠다. 학문을 좋아하신 부친과는 달리 나는 공부하기가 싫어, 논과 밭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나가 하루 온 종일 일하고 놀다가 부친께 호되게 야단맞았다. 그 후로도 달라지지 않았다”(강치원, 1999: 62)

반면에, 아버지가 개설한 서당을 피해 인근의 다른 서당에 다닌 경우도 있다. 이시행은 아버지가 개설한 건계서당에 다니지 않고 인근의 쌍천서당에 다녔다(김억렬, 1996: 44).

훈장과 학생간의 다른 혈족관계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훈장이 학생의 조부, 외조부, 백부, 또는 형인 경우도 있었다.⁹⁾

- * 할아버지가 서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밑에서 배웠다. 다른 사람은 다 학교를 가도 내 손자만은 죽어도 일본글을 안 가르치겠다고 하시며 손수 붙잡고 가르쳤다. 두 칸으로 가운데 밀장지 문을 해 닫고 아랫방에 할아버님이 계셨고 학동은 윗방에서 공부했다(한홍식, 1994: 61).
- * 조부가 서당을 그만 두고 나서도 조부로부터 개별지도를 받았다(한홍식, 1994: 25).

훈장이 학생보다 향렬이 낮은 조카인 경우도 있었다. “훈장은 종중에서 학문이나 인품 등을 고려하여 추천되었는데, 훈장은 조카뻘이었으나 깎듯이 예우로 대하였다. 마을이나 종중에서도 향렬에 관계없이 훈장에게 상당한 예우를 했다”(신용훈, 2002: 12). 유연오는 유제동 훈장에게서 초학을, 유훈상 훈장에게서 소학을, 유해동 훈장에게서 대학을 배웠는데, 이들 중 유훈상은 족속이고 다른 두 훈장도 인척지간이었다(박영모, 1995: 89). 황락기는 개량서당에서 이상면, 황철정 훈장에게서 배웠는데, 이상면 훈장은 친구의 육촌형이고 황철정 훈장은 자

9) 훈장이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인 경우는 학체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훈장인 큰아버지에게 비 한 가마니를 뵈었다(신용훈, 2002: 42).

기의 사촌형이었다(김억렬, 1996: 39). 학생들은 집안 할아버지뻘인 훈장에게서 배우기도 했고, 아버지가 배운 훈장에게 아들이 이어서 배우기도 했다(신용훈, 2002: 16). 향촌서당은 훈장과 혈육지간의 학생이 있어서 서로가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

나. 훈장의 겸업

훈장은 서당의 학생을 가르치는 본업 외에 일부의 훈장은 향촌의 구장, 한의사, 농사 등을 겸업하기도 하였다. 철원의 이백용은 훈장을 전업으로 하면서 가족들과 농사를 지었다(신용훈, 2002: 31). 훈장은 동리의 구장이나 면의 평의원을 겸임하기도 했다(김억렬, 1996: 39; 김상준, 1994: 24, 27). 훈장이 구장을 겸할 때, 면사무소에서 구장회의를 하면 서당은 집장에게 맡기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김억렬, 1996: 24, 27).

훈장이 한의사(한약방)를 겸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김상준, 1994: 57, 69, 76, 89; 강치원, 1999: 12). “병이든 사람을 위해 침술활동을 했으며, 나중에는 학동이 줄면서 한약방으로 전업을 하게 되었다. 특히 학동들 중에서 급체를 하거나 골절상을 입었을 때에는 직접 치료를 해주었으며, 동네사람들도 서당으로 낮에도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공부에 지장이 있었지만 (훈장님은) 친절히 치료하여 주었고 그 보답으로 콩, 조 등을 한 되 정도 드렸다” (강치원, 1999: 12). 한의사를 겸하던 훈장들 중에는 후에 훈장을 그만두고 한약방을 개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훈장이 한약방을 하는 것은 학문에 원뜻에 위배된다고 하여 경시되기도 하였다(김상준, 1994: 69).

다. 훈장의 애환

훈장 생활의 애환을 표시한 ‘훈장타령’ 이 있다. 이런 타령조의 노래가 훈장들에게서 상당히 불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訓 長 打 令

世上誰云訓長好	세상에 누가 선생을 좋다고 하느냐
無煙心火自然生	연기 없는 마음에 불이 절로 난다.
曰天曰地青春去	하늘천 따지 하는 동안 청춘은 가고
云賦云詩白髮成	글이니 짓기니 하는 동안 백발은 온다.
雖誠難聽稱道語	비록 정성은 다하나 칭송은 없고
暫離易得是非聲	잠시만 비우면 싸우는 소리 듣기 쉽다.
掌中寶玉千金子	손안에 있는 보옥 같고 천금 같은 자식을
囑請撻刑是真情	매를 때려 달라는 소리가 진심이나 (김상준, 1994: 43. 김현주 채록)

훈장타령은 훈장의 답답한 마음과 어린 학생을 교육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갈등을 한탄하는 모습을 그렸다.

춘천 반의동서당의 구은 송중은 훈장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학덕을 존경하여 마을에 집을 짓고 식구들과 함께 초빙한 인물이다. 어느 필사(筆士)가 찾아와서 지내다가 그의 인품과 학식에 감탄하여 시를 지었다. “與子每歎時不遇, 誰知白玉沒泥砂”(그대 같은 분이 때를 만나지 못함을 늘 탄식합니다. 누가 백옥 같은 보석이 진흙과 모래에 묻혀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 시에 대하여 그는 “彼一時 此一時”(그대와 나의 처지가 같네)(박영모, 1995: 19)라고 탄식조로 응대하였다. 훈장은 필사의 시에 대하여 자신의 실력에 비하여 서당 훈장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처지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훈장은 객지생활을 많이 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다. 훈장을 한 집안 할아버지가 객지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적은 시로 “古園長在夢, 去魂不可招”(옛 고향의 들이 항상 꿈속에 나타나, 그곳으로 가는 혼을 불러 세울 길이 없어라.) (김억렬, 1996: 30)라고 지었다고 한다. 훈장의 생활에 외로움을 적은 시로 생각된다. 서당의 훈장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한탄하는 기록의 면모이다.

6. 훈장의 체벌

훈장의 체벌은 구전과 민속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훈장은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생활의 문란을 금지하기 위해서 체벌을 했다. 체벌 도구로는 회초리와 담뱃대가 있었으나, 대부분 회초리가 사용되었다. 회초리는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것으로 물푸레나무, 싸리나무, 뽕나무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회초리는 미리 서당에 준비해 두었다. “훈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5개씩 해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회초리로 때렸다.” (김억렬, 1996: 72), 훈장이 학생을 체벌할 때에는 목침 위에 학생을 올리고 종아리를 때리는 일이 많았다. 담뱃대로 때린 경우도 있다. “졸거나 공부가 부진하면 긴 담뱃대로 사정없이 내리치곤 하셨다. 담뱃대는 가운데는 대나무였고 담배를 넣는 앞부분과 입에 무는 부분은 하얀 낫쇠로, 길이는 70-80cm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여 그 자국과 아픔이 며칠씩 계속되었다.” (신용훈, 2002: 16) 학생의 체벌 부위는 대부분 종아리였지만, 볼기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접장이 훈장의 출타 중에 함께 장난을 쳐서, 훈장이 바지를 벗게 하고 물푸레나무로 때렸다” (김억렬, 1996: 72) 등으로 회초리 체벌의 모습을 말했다.

체벌의 기준은 성적 불량과 품행 불량이었다. 암기와 작문에서 불량하면 처벌이 있었다. 특히 학습(講讀) 중에 틀린 수에 맞추어 종아리의 횡수를 정하는 일이 많았다. 학습부진에 대한 처벌이 심한 경우도 있었다.

* 이레장에서 1자 불통에 종아리 1대다. 나는 7자를 불통하고, 친구는 팔십 몇 자를 불통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나는 너를 못 가르치겠다.” 고 호통을 치며 내쫓으니,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80여 자를 불통하였으니 당신 아들이 종아리 80대를 맞으면 죽어. 그러니 나는 못 가르치겠네.” 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회초리를 2개 가지고 와서 40대를 때렸다. 그리고 훈장은 나를 부르더니 밖에 나가서 일꾼이 해온 땀나무 단에서 싸리까지를 꺾어오라고 해, 종아리 7대를 때렸다. 그 친구는 걸음을 못 걸었다 (한홍식, 1994: 20).

훈장의 체벌은 잘못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전체 학생들에게 가해지기도 했으며, 학생의 책임자인 접장, 훈장의 친지인 학생 등에게 더 냉정하게 시행되기도 했다. 단체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을 ‘물베낌’ 이라고 했다. “물베낌은 서당의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에 장난을 치거나, 여럿이 나쁜 짓을 하여 훈장에게 적발되어 단체로 매를 맞는 것이다. 물베낌에는 접장부터 매를 맞았다.” (박영모, 1995: 68) “서당 학생들의 잘못을 하면, ‘접장이 그러면 되느냐’ 고 하면서 대표로 맞았다.” (한홍식, 1994: 68). 훈장은 자신의 친지인 아들, 조카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다른 학생의 잘못인데도 자기(훈장)의 아들을 처벌하여 섭섭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김억렬, 1996: 52). 훈장의 아버지가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학생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 서당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큰아버지 덕 사랑채 방 두 칸 중 한 칸을 서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칸은 조부께서 기거하셨는데, 조부께서 문틈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감시하시다가, 학동 중에서 공부에 열중하지 않는 학동이 있으면 느닷없이 (서당방에) 달려들어 와서 지팡이나 대나무, 담뱃대로 사정없이 (학생의) 머리통을 내리치시던 일이다.” (신용훈, 2002: 42)

훈장의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훈장의 체벌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종중서당에서 조카 항렬의 훈장에게 공부가 미진하다고 싸리나무 회초리로 여러 차례 매를 맞은 학생은 “훈장에게 매를 맞을 때 조카뻘이라는 생각이나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오히려 송구한 생각이 들었다.” (신용훈, 2002: 12)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훈장의 체벌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훈장이 무섭고 싫어서 훈장 덕 담장의 호박에 말뚝을 박고 호박을 따서 버렸다(김광국, 1995: 77).

* 왜경이 서당을 찾아와서 훈장과 서당의 학동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는 속으로 좋아했다(박영모, 1995: 81).

- * 공부에 발전이 없는데 훈장이 종아리를 때려서 친구 한 명은 서당을 그만두었다(박영모, 1995: 100).
- * 선생님은 학동들을 엄하게 가르치셨다. 강을 못 외는 학동들은 호되게 종아리 맞았다. 나는 친구와 서당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성황당에서 전 선생님 죽게 해 달라고 빌 정도로 선생님이 미웠다. 전 선생님께서 엄하게 가르치셨던 글을 지금도 줄줄 외울 수 있다(박영모, 1995: 62)
- * 서당에 5세에 취학하여 놀지 못하고 다니는 학생에게 체벌을 한 것을 보면 훈장을 보기 싫었고 병이 나서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가끔씩 배가 아프다고 피병을 하여 서당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5세의 아들에게 글공부를 시키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였다. “만약에 내가 훈장이 된다면 마음껏 놀고, 폭 자면서 공부하라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어릴 때는 초저녁 잠이 많아서 밤글 공부는 즐기만 했지 공부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졸다가 회초리로 맞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낮에는 밖에 나가 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우리 집에서 서당 차례를 할 때 내가 훈장으로부터 종아리를 맞고 울면 어머니도 부엌에서 울곤 하셨다(박원의,1996: 55)

훈장의 체벌에 대하여 일부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이 잠시의 감상적 생각이지만 그 당시의 생각이 상당한 시간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훈장의 일부는 체벌에 대하여 “때려서 공부를 시킬 수 있다면 공부 못할 사람이 없다.” (박영모, 1995: 19)고 하였다. 그리고 훈장이 성격이 인자하여 부형들이 종아리를 좀 때려가며 가르치시라고 하면 “남의 귀한 자식들을 가슴 아프게 왜 때리느냐?” 고 하시며 매를 대지 않았다. 조 선생님이 매를 대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게을리 하고 나태하였다(박영모, 1995: 62, 80). 학생들은 훈장의 체벌에 대하여 불안하고 초조하였지만 체벌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7. 훈장의 복지

훈장은 학생을 가르친 대가로 일정한 물품을 받았는데, 이를 학채(學債)라고 하였다. 학채는 대부분 벼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사정에 따라 벼, 콩, 조 등의 곡물과 의복과 생활용품 등을 지급하였다(표4).

<표 4> 훈장의 학채

학채	쌀	잡곡	돈	기타	무료	모름	계
서당수	191	39	15	2	8	10	265

훈장이 받는 학채는 학부형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대체적으로 훈장의 학채는 학생당 연간

으로 쌀 1가마니였다. 그러나 훈장의 사정과 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벼 1가마니가 기준이지만, 훈장이 외지에서 오면 벼 2가마로 올려주기도 했다(한홍식, 1994: 82). 가정이 빈곤한 학생은 절반인 벼 다섯 말을 내고, 학생 수가 많을 때 다섯 말을 내기도 하였다. 천자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몹시 빈곤한 학생에게는 학채를 완전히 면제해 주기도 했는데, 학채를 내지 않고 배우는 것을 ‘동냥 글’ (김상준, 25)이라고 했다.

번차서당의 훈장은 학부형의 집에서 거주하고 식사를 지급받았다. 훈장의 거주와 식사는 학부형이 순번을 정하여 담당했다. 대체로 한 달로 기간을 정하여 순번으로 훈장을 모셨는데, 이를 ‘달 차례’라고 하였다(한홍식, 1994: 47). 훈장 모실 집을 정할 때는 부자 집은 여름에 모시고, 가난한 집은 가을과 겨울에 모셨다. 가난한 집이나 천자문을 배우는 집은 면제되었다. 번차서당의 훈장을 모시는 일이 가정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훈장을 한 달 혹은 두 달 모시는 윤번을 하다가, 결국은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에서 계속하여 모시기도 했다(한홍식, 1994: 43, 82).

훈장은 학부형들에게 의복을 받았다. 훈장의 의복은 삼절복(여름 옷, 봄가을 옷, 겨울 옷)과 이절복(여름 옷, 겨울 옷)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학부형들이 회의하여 결정하였다. 학부형들은 신발, 담배를 제공했으며, 명절 때에는 선물로 술을 드렸다. 가을철에는 시목(땀감)을 제공했고 훈장의 초가집의 이엉을 엮어 드렸다. “농사철에는 농사일을 도와드렸다. 그리고 겨우살이 옷과 버선, 고무신, 미투리를 사다 드렸다. 추석이나 설 때가 되면 세찬이라고 해서 각자 고기, 신발, 술 등을 사다 드렸다.” (한홍식, 1994: 39) 학채는 학부형 대표가 걷어 냈다. “학부형 모임은 월 1회씩 가졌는데, 안건은 달 차례 순서와 공동경비 문제, 기타 행사에 관한 것들을 의논했다.” (한홍식, 1994: 39)

훈장은 학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훈장 중에는 식구는 많고 생활은 어려워 소작을 약간 하는 훈장도 있었다(신용훈, 2002: 34; 김상준, 1994: 79).

III. 결론

본 연구는 서당 훈장의 교육활동의 실체를 구술사적 방법으로 탐색했다. 특히 훈장의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교육실체에 존재하는 훈장의 면모 등에 탐색하였다.

1. 훈장의 자격, 연령, 학문적 능력, 품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훈장의 학문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명망, 유학정진인 사서와 주역에 능통, 학문을 연찬의 모습으로 평가하였다. 훈장은 향촌의 지식인이면서 유학정신을 실천하는 모범적 행동을 하였다. 훈장은 의관을

정제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했다. 일제 식민지 강점기의 훈장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독립투사들을 소개하고, 반일의 글을 지으면서 독립정신을 교육했다.

2. 서당은 훈장 자신이 개설한 자영서당과 향촌의 학부형이 설립한 유지조합서당이 있었다. 유지조합서당은 학부형회의에서 주도하여 훈장을 임용하였다. 훈장의 임기는 대체적으로 1년이였다. 과점을 기점으로 훈장의 유임 여부가 정해졌다.

3. 훈장은 향촌의 각종예식을 주관하고 관여하였다. 훈장의 말은 ‘마을의 법’ 과 같고, 향촌의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그리고 훈장은 향촌의 지관의 일과 향촌의 대소사 행사 등에 관여하여 지역민과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었다. 일부 훈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 농사를 짓고, 구장(현재 이장), 한의사를 겸업하였다. 훈장은 수업 중에도 구장회의가 있으면 참석하고, 환자가 오면 진료하였다.

4. 향촌사회가 집성촌인 지역이 많아서 훈장은 학생과 혈족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훈장과 학생이 부자지간, 조손지간, 숙질지간, 사촌 형제지간 등이었다.

5. 훈장의 생활은 학생을 가르치는 외로운 생활이다. 그래서 훈장타령이 불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훈장은 자신의 학문적, 사회적 위치에 비하여 대접이 소홀함을 탄식하기도 하였다.

6. 훈장은 학생을 체벌하였다. 체벌의 형태는 회초리로 종아리는 때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엉덩이나 머리를 때리는 일도 있다. 체벌은 학습이 부진할 때에 시행되었다.

7. 훈장의 학체는 대부분 곡물로 지급되었다. 학체는 연간 벼 1가마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훈장이 외지인이거나 학생 수가 많거나 학생이 가난하면 학체에 증감이 있었다. 훈장의 학체는 풍족한 편이 아니었다.

8. 본 연구는 서당훈장의 교육실제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으로 첫째로, 훈장은 서당교육의 교육자로서 존재와 위치에 대하여 담론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당의 훈장이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문제로, 지역의 교육과 사회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특히 서당의 훈장은 향촌민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융합하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치원, 「양구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광국, 「가평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상준, 「횡성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억렬, 「양양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윤희, 「강릉지역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노영택, 『일제하의 민중교육 운동사』. 서울, 탐구당, 1980.
- 박래봉, 「일본통치하 서당교육의 구체상V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81호, 1978.
- 박래봉, 「서당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육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대논문집』, 1981.
-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실태 -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제6집, 1984.
- 박래봉, 「서당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육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대논문집』, 1981.
- 박래봉, 「서당교육의 교수법과 강에 관한 고찰」, 『교육』, 중앙교육연구소, 1977. 5월호.
- 박영모, 「춘천지역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박원의, 「정선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신용훈, 「철원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병용 역, 『증언사 입문』 (James Hoopes, Oral History).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5.
- 유태열, 「삼척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근명, 「홍천군 초등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종각, 『교육인류학』. 춘천: 도서출판 하우. 2004.
- 이종암, 「인제군 초등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춘성, 「춘천시 동면 상걸리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재래서당과 개량서당의 비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먼이스트, 2006.
- 전대규, 「영월군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순우, 「18세기 서당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소 부속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최승순, 『書堂俗』, 강원문화』, 제3집 ~ 제10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3 ~ 1990.
- 최철규, 「양평군 지평지역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피정만 외, 「강원도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연구』 제13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4. 3-24.

피정만, 『강원교육사』. 도서출판 하우. 2003.

한동일, 「조선시대의 향교와 서당」, 『한국교육학의 탐색』, 서울: 고려원. 1985. 245-253.

한홍식, 「원주지역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Abstract》

A Oral History of Seodang(書堂) Hunjang(訓長)

Phee, Chung-M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ral history on teaching and life of Hunjang of Seodang. Hunjang taught common folks children in all over the country. He was a good model of traditional school teacher.

Generally ages of Hunjang were fifties or sixties. Parents of students had a tendency to evaluate the academic abilities of Hunjang to refer his reputation, knowledge of the Four Books and the Three Classics(四書三經) and the Book of Changes(周易), and continues self-training. Hunjang gave a fine example of a classical Confucian scholar to be in full dress, be careful in speech and behavior, have strong character.

Hunjang as an intelligent led various events of a village. He wrote a prayer of a memorial service and a funeral service, named a newborn baby, and chose an auspicious day for marriage in a village. He also designated a graveyard as a geomancer. So he was in friendly relations with people of village. They called him 'a law of village'. Besides to teach children, some of Hunjang engaged in farming or in Oriental medicine clinic. Many of them became Hunjang for livelihood, others for leisure.

Sometimes there were related by birth between Hunjang and students, for example a father and son, a grandfather and grandson, an uncle and nephew, and a cousinship. In most cases Hunjang were employed by people of village received grain and dress for tuition fees. In general tuition fees of a year were a bag of rice, and three suits of clothes for spring & fall, summer, and winter.

Hunjang inspired a spirit of independence to students for a colonial period of Japan. Hunjang inflicted corporal punishment on students who showed poor results of learning at seodang.

Key words: Hunjang of Seodang, the academic abilities of Hunjang, roles of Hunjang, relation of Hunjang and students, tuition fees of Hunjang

- 논문투고일 : 2008. 3. 5.
- 심사일 : 2008. 3. 14.
- 심사완료일 : 2008. 4. 13.